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만약 서울에 주소가 없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메인이 없다면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홈페이지를 찾기는 커녕 접속부터 할 수 없다. 도메인은 인터넷에서의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주소이다. 정확하게 도메인이라 컴퓨터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IP주소는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IP주소를 입력해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리성을 내세워 만들어진 것이 영문도메인이다. 인터넷을 처음 개발하고 사용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도메인에 대한 뜨거운 이슈는 단연 매가격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웬만한 도메인은 이미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 시장관세라고 한다. 인터넷 사업에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면 이

도메인 선점 경쟁 불교계도 관심 필요

이 독특한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와야 한다. 그래서 신종 사업으로 도메인 장사가 생기기에도 했고 도메인 거래는 앞으로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에 3만인 안팎의 도메인 유저 수를 보면 내면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이 아이디어에 따라 수천만대를 웃돌아 이윤을 내니 도메인 작업소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고개도 모 사이트는 도메인 작업 때에 임대 사업까지 하고 있다. 석가모니불(sakyamunibuddha.com) 미륵불(maitreyabuddha.net) 마하부인(mahamayana.net) 스님(sangha.org) 이외고(imwoko.com) 등 40여종을 확보해놓고, 1천만원 판매 혹은 월사용료 5만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날로그식 정서의 불자들에게는 '세상에...' 하는 탄식도 나올만한 생각이 된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물장수 김선철' 식의 장사라는 비난의 소리가도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미 인정된 상태로 되어있다. 인터넷 포교에 관심과 함께 우선 도메인부터라도 선점해 두어야 하겠다.

위정환 기자(yryui@buddhania.com)

사찰 남골시설과 포교

수도권 10년내 3배이상 수요 는다

불교계의 남골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크게 늘고 있는 화장물·비해 이를 수용할 남골시설은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사찰 남골시설은 화장문화 선도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령생활은 물론 포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화장물은 20%를 밀집된 93년에 비해 95년 22%, 98년 27.8%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98년 이전까지 30% 안팎에 머물렀던 서울의 화장물은 지난해 43%로 증가한데 이어 올 1~2월에는 54.3%를 기록했고, 경기지역의 경우도 95년 23.8%였던 것이 98년 34.2%에서 지난 해에는 40%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골시설 수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말 경기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경기도 장묘시설 수급현황'에 따르면 모두 3만2천여개의 분간 능력이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2005년까지 3만개, 2010년까지 8만개가 각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서울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10년 이내에 남골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한국장묘문화학회·한국장묘문화연구소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령생활과 조상추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불자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사찰 남골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 〈글 쓰는 순서〉
- 1. 화장 후 갈곳 없다
 - 2. 시설운영 문제있다
 - 3. 남골문화, 불교가 선도

화장물 가파른 상승세 영탑공원 등 20여곳 운영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곳도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장장과 남골시설 수요분을 고려할 때 공설 남골시설이 늘어나고 해도 적어도 10년 이내에 사찰 남골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3만 2천여개 이상 늘어나야만 불자들이 남골을 희망하는 일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도 사찰 남골시설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남골시설의 총 분간능력은 55만여개로, 이용률이 30%를 감안하면 지방의 사찰 남골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는는 어렵다.

국토이용법 개정 긍정 검토

국토이용관리법과 이 법 시행령이 사찰의 고유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263호 1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이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23일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헌개정 '다음 총회로'

조계종 중앙총회는 146회 임시총회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의 건을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유)에서 심의한 후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가 가능한 것이

"정책중심 선거운동" 7대 종교지도자 '호소문'

7대종교 지도자들이 4.13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성님을 비롯한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3일 서울빌딩 한국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우리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공공·양용 적용, 비방·혹책선전, 특히 지역감정 유발을 배격하고 △이반 선거가 바로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각자의 역할과 임무수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액 준수와 정권·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정당의 선거개입 자제, 선거관리기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관리 촉구하는 한편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호소했다.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의 후불벽화가 1429년에 제작된 국내 최고(最古)의 후불벽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해체·보수 중인 봉정사 대웅전서 불단에서 "지정나십일년(正統二十一年:1510년)에 봉정사 불단을 만들다"라는 목서가 발견돼 대웅전 건물 연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문화재청은 23일 "대웅전 지붕 속 종보받침 장식(長壽)에서 '무신년(戊申年:1428년)에 미륵화상을 그렸다'는 목서가 발견됐다"며 "전남 장성의 무곡사 국화전 후불벽화(1478년)보다 48년 앞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조계종총무원들은 올해 부처님 오신날 포어를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로 정하고 자비 실천행위를 널리 펼쳐줄 것을 각 사찰과 단체에 당부하기로 했다.

총무원들은 22일 '봉축행사 지침'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축제를 떠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고 당부하고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자매결연 또는 봉사활동을 결성해 지속적인 자비실천행위를 펼치고"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사찰을 봉축하러 15종 가운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문장을 취하고 있는 수화문자상(사진)을 주체적으로 갖춰 자비실현의 분위기를 확산시키 나가기로 했다. 사찰부는 자매결연, 봉사활동 결성을 위한 실무 지침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은 또 이날 봉축행사와 홍보에 쓰일 봉축디자인집을 발간하고 사찰과 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봉축디자인집에는 98년부터 봉축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꽃비화장, 아가부처, 등자캐릭터와 올해 새로 개발한 연등축제 화장, 어린이용 캐릭터 등이 실려 있다.

올해 봉축디자인집에서는 주제를 주황(불교기에서 인유를 상징하는 색)으로 정하는 한편 불교기에 사용하는 황·황·파·파·주황의 색도 지정, 8종의 현수막 장식 풍양을 제시해 봉축행사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도했다. 정성운 기자

'고은칼럼' 6면

연꽃잎 제조특허(특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등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에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등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남품형태〉

- 비단 연등
- 등등 + 비단 연등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공단(비단) 연등 완성과정

비단연등 → 등등 → 완성연등

-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곡동 180-1